

## 纏足の 상징적 의미

차 은 진 · 박 민 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과

### The Symbolic Meaning of Footbinding

Eun-jin, Cha · Meegnee,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Hee University

(2001. 3. 6 접수)

#### Abstract

The "Changzu"(footbinding)was an old chinese traditional custom practiced during more then thousand years and was applied to only woman.

It prevents young girl's foot from growing when she is 3 to 8 years old by tying big toe and forcing her to wear the lotus shoe called LIANXIE.

In China, the feet and shoe had special symbolic meaning other than usual simple function of supporting body and protecting the foot. they are symbolic aspects of implicating interal new mean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internal meaning symbolized by Changzu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religious, aesthetic and group unconscious aspects.

In conclusion, the Changzu is a symbol that representing a dilemma which on one hand women would like to attract man physically while on other hand woman should be chaste and modest morally.

And also it is a group imago representing groups unconscious desire to preserving the artificial identity bestowed upon Chinese woman by Chinese man.

**Key words:** Changzu(footbinding), Lianxie, Groupunconscious; 전족, 연혜, 집단무의식

### I. 서 론

복식은 신체의 연장이고, 신체이미지의 표현이므로 복식사의 연구야말로 신체에 대한 시대적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신발은 의복의 외관적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의상과 함께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필벽의 소설 대지에서 보면 왕릉의 아내가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어릴 적 전족(纏足)을 하지 못해

커다란 발을 가진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남편의 바람이 자신의 발 때문이라고 여기는 내용이 나온다. 중국에서 발은 어떤 다른 신체부위보다도 가장 은밀한 곳으로 취급되어 남자가 실수로 여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용납되어도 발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여자의 발에 손을 대고도 그 여자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었을 만큼 중국 사회에서 여자의 발이 갖는 의미는 매우 독특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국에서 1000년간 지속되어

은 여성의 발 묶는 풍습인 纏足과 전족신발인 蓮鞋(연혜)를 사회문화적 관점과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을 통해 분석하여 발과 신발이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등의 생물학적 기능적인 도구로써가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기호학적 상징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신발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과 연구분야로서의 새로운 위치 창출에 힘쓰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역사적인 연구법으로 동서양의 문헌과 국내문헌을 참고자료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족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시대적 배경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전족신발인 연혜에 대한 조형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전족을 사회문화적인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여, 전족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纏足の 발생과 변천

### 1. 전족의 발생

宋대의 시인 蘇東坡의 시에 '두발로 서 있기도 힘들만큼... 손바닥 위에 놓고 보아야 할 지경이다.(竝立雙趺因)'라는 시구가 있고, [宋史·五行志]에 의하면 이종조(1225~1264)의 '궁비...발을 묶었다'는 명칭에서 "炔上馬"라 불리었다는 기록으로<sup>2)</sup>.

宋대의 전족 출현은 확실하고, 그 시기는 송초기의 벽화 등에 그려진 귀부인이 모두 전족이 아니었으며, 전족은 '회녕, 원풍 사이엔 실행자가 극히 적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대략 1068~1085년 公元 11세기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물론 당나라 때부터 작은 발을 숭상하기는 하였으나 전족이 아닌 자연발 이었으며 신발 모양도 남녀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여자신발의 앞모양이 뾰족한 鳳頭高翹(봉두고교)의 신발형태가 많았는데 신 윗면에는 꽃을 직조하거나 아니면 수를 놓았다<sup>4)</sup>.

문헌적 기록 외에 송대의 전족 발생을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면 송대는 세습이나 증여로 부여받은 계급인 호족이나 문벌귀족이 중심이었던 선대와는

달리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급을 성취할 수 있는 성취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그러므로 작은 발이 선호되었던 중국 사회에서 송대의 전족은 작은 발을 부여 받지 못한 여성에게 남성의 과거제도처럼 중심계급이 되기 위한 새로운 계층상승의 방법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宋대의 전족

宋대는 중국의 상업 혁명이 일어난 시기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적 집단이 형성된 시기이다. 여성의 노동력이 덜 중요시 되는 도시로 중심계급의 이동은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축첩관행의 확산과 과부제가에 대한 통제, '전족'의 확산으로 여성의 지위는 이후 수세기 동안 더욱 떨어지게 된다<sup>5)</sup>.

복고적이고 국수적인 경향을 지닌 유교문화의 발전은 전족을 합리화하는 이념이 되었으며, 그 후 전족은 중국 남성의 집단욕망의 상징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질 속성들에서 없어서는 안될 한 항목이 되었고, 점차로 그것을 둘러싸고서 특수한 足靴에 관한 학문이 생겨났으며, 여자들의 작은 발은 그 여자의 육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 여성의 성의 상징 그 자체, 성적 매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으로 여겨지게 되었다<sup>6)</sup>.

송대의 전족신발은 후세의 '3寸 金蓮(세치금련)'과는 다른 것으로 전족 여인들은 보편적으로 '錯到底(착도저)'라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은 신 밑이 뾰족하며 2가지색으로 되어 있었다<sup>7)</sup>.

이러한 신발 유물로는 福建 福州 南宋墓에서 출토된 길이가 약 13.3~14cm의 '尖形翹頭弓鞋(첨형봉두궁혜)'가 있고, 그 외에 浙江 구주 南宋墓에서 출토된 신발 [그림 1]이 있는데 길이 17cm, 넓이 5.8cm로 실제의 신발과 비슷하다.



[그림 1] 송대의전족신, 「中國裝飾五千年史」, p. 288.

### 3. 元대의 전족

정복왕조를 성취한 단 하나의 유족 민족인 몽고인이 송을 멸망시키고 세운 元은 한족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언어와 신분 뿐 만 아니라 관습 속에서 중국 민중을 설득하여 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능력있는 중국인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유교적 이념과 문화를 진작시켜 학인 관료 계층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족에게 성씨조차 없는 몽고인은 송대 이래의 전통적 혐오감으로 원시적 야만인으로만 묘사 되었으며, 원은 중국바깥의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더욱 비중국적인 특성을 보강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전족은 한족에게 야만인인 몽고족의 여인들과 한족여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몽고인들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적 차이에 쉽게 교화되지 못해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도 많았다<sup>9)</sup>.

### 4. 明대의 전족

몽골족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明왕조는 한족의 전통적인 지배 체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원대에 어지러웠던 한족의 전통적 고유문화를 재정비하고 부흥하려는 노력은 사회 여러 제도의 정비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 명대의 문화를 국수적이며, 복고적인 성격을 띠게 하였다.

그래서 한족 고유의 문화 중 하나인 전족풍습은 더욱 강조되고 찬양되어 크게 성행을 하였으며, 지금의 '세치금련(3寸金蓮)'이라는 전족에칭의 '세치(三寸)'라는 기준이 생겨난다. 세치(三寸)는 지금의 약10.2cm 정도의 크기로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도 있

는 전족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또 여인의 발이 작을 뿐만 아니라 弓子(활)모양이어야 하며, 전족의 앞부분이 마치 빨처럼 뽕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도 모두 명대에 시작되었다<sup>10)</sup>. 서민 문화가 발달한 명대에 전족은 이제 상류층이 아닌 서서히 서민으로까지 확산 발전되기 시작한다[그림 2]

### 5. 淸대의 전족

淸조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흥기한 여진족의 한 무리 즉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다. 선진국인 중국을 정복, 지배하기 위해 중국 사회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원의 몽고족과는 달리 淸조는 입관 전에 중국적 국가 체제를 정비한 뒤, 중국인의 협력을 얻어 중국 문화를 존중하며, 중국적 통치를 행하였다. 淸조는 원나라가 중국 통일시 그들이 급 및 송의 제도를 본 딴 것보다도 훨씬 많은 정도로 明의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였다<sup>11)</sup>.

전족은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투르크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淸조로서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장려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淸조는 전족이 최고조를 이룬 시기로 北方에서 南方으로 퍼져 나갔으며, 각 지역별로 특징적으로 발전을 한다.

淸대에는 '세치금련'이라는 전족 애칭의 '금련(金蓮)'이라는 명칭이 생겨났고, 네치(四寸) 이내의 발은 '銀蓮', 네치4寸 이상의 발은 '鐵蓮'이라 칭하였으며, 심지어 두치(二寸)도 못되는 발로 갓난아이의 발보다 작은 경우도 있었다. [그림 3] 이 발은 특히 '抱小姐(포소저)'라고 불렸으며 포소저라는 명칭은 발이 너무 작아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 나다닐 때에는 꼭 다른 사람에게 업혀야만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sup>12)</sup>.



[그림 2] 명대의전족신, 「中國裝飾五天年史」, p. 306.



[그림 3] 청대의 세치금련, 「Shoes」, p. 444.

전족의 많은 애호가들은 크기 뿐 만 아니라 좁고 가늘며, 뾰족하고, 부드러우며, 양발이 균형을 이룬 모양의 '金蓮'을 제일로 취급했다<sup>23)</sup>.

한족이 아닌 청조의 만주족 여인들은 새로운 전족 풍습인 '刀條兒(도조아)'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10-15세의 여자가 스스로 원하여 전족을 하는 것으로 '세치금련'과는 다르게 발의 크기보다는 좁고 가는 것을 추구하여 형질을 3번 감고 그 위에 양말과 신발을 신었으며, 5寸(약17cm) 정도의 크기였다. '打條兒(타조아)'라 부르기도 했다<sup>24)</sup>.

그 후 전족은 청말 유럽문화의 유입으로 전족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이 싹트게 되고, 서양 선교사들의 인권운동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문화 운동을 기치로 1919. 5.4 운동으로 철폐를 맞고, 마침내 모택동이 1949년 공식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게 된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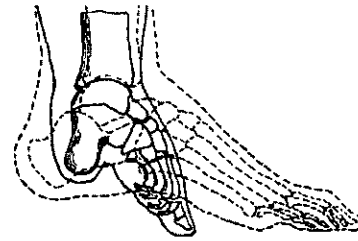
### III. 蓮鞋의 조형적 특징

#### 1. 전족의 방법

전족의 시행은 대부분 여아가 5~7세가 되면 하였고, 상류층에서는 주로 5세이고, 더러 남부 중국의 상류층에서는 3~4세에도 하였다. 가장 늦은 나이가 8세였다<sup>26)</sup>. 보통 어머니들이 시행을 하였으나 상류층이나 부잣집에서는 脚婆(전족을 전문으로 해주는 할머니)를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너비 2인치 길이 10피트 형질으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을 발바닥으로 향하도록 감고 그런 다음 휘어진 발가락들과 발뒤꿈치를 함께 당겨 단단히 묶었다. 오로지 엄지발가락만이 이 體刑을 피하여 묶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억지로 발에 뾰족한 가죽신을 신기고 보통 2주마다 전의 신발보다 0.1~0.2인치 정도 작은 것으로 바꿔 신겼다. 이렇게 하여 정상인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인 '세치금련(三寸金蓮)'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전족 시행 과정에서 종종 살이 썩어 가게 되어, 발바닥에서 한 두 개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그러한 고통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되며, 2년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고통이 사라진다<sup>27)</sup>. 그 후 청결을 위해 3일에 한 번 정도는 등어맨

전을 풀어 씻고, 발톱도 깎아 주었다[그림 4]

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영구적인 불구가 되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육체적인 활동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었다.



[그림 4] 전족으로 인한 발의 변형, 「All about Shoes」, p. 51.

#### 2. 蓮鞋의 조형적 특징

##### 1) 蓮鞋의 명칭과 기본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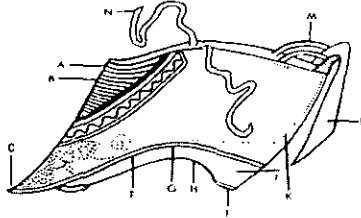
蓮鞋(연혜)라는 전족신발의 명칭은 전족을 金蓮(금련)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작은 발 여자들이 신는 전족신을 금련 또는 연혜라고 하였으며, 그 외 신바닥이 활처럼 휘어져 활과 비슷하다하여 弓鞋(궁혜)라고도 하고, 수를 놓는 경우가 많아 繡鞋(수혜)라고도 한다<sup>28)</sup>.

蓮鞋의 기본 특징은 작은 것(少), 뾰족한 것(尖), 굽혀진 것(弓), 고저한 것(高低, 굽이 높은 것)을 기본으로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다. 작은 크기와 뾰족한 신발의 모양은 공통적이고 높은 것(高)과 굽혀진 것(弓)은 차이가 난다.

##### 2) 蓮鞋의 형태

연혜의 형태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나 기본적인 형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신발부분의 명칭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현대적 용어와 과거의 용어가 차이가 많아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만을 설명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현대적 명칭을 첨부하였다.

전반적으로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연혜는 앞부분(그림 5의 C)이 위로 높이 쳐든 형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편평하게 되고, 바닥(그림 5의 G)도 편평한 것에서 굽은 것 다시 편평한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그림 5] 1920년대의 일반적인 북방형의 연혜 형태, 「Chinese Footbinding」, p. 42.

- |                    |                   |
|--------------------|-------------------|
| A. 신의 입구(top line) | B. 신앞의 끈          |
| C. 신의 앞모양(toe)     | F. 신발 테두리 (Welt)  |
| G. 신발바닥(sole)      | H. 굽의 허리          |
| I. 굽의 끝(Top Lift)  | J. 외형상 굽 (خم 저장소) |
| K. 실직한 굽(Heel)     | L.-M. 굽 들어 올리개    |
| N. 신발 끈            |                   |

신발의 굽(그림 5의 J)도 송대는 높지 않았다가 후대에 높아지고 다시 낮아지게 된다.

굽의 경우 높이는 대부분 2inch 이상이었고, 심지어 8inch가 되는 것도 있었다. 굽의 위치가 발 뒷부분이 아닌 일부 지방에서는 신바닥의 중간부분에 오도록 만든 것도 있었다. 신발의 입구가 작아 신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발 뒤에 주걱 같은 것을 달기도 하고(그림 5의 L), 신 앞부분 2~4개의 끈을 달아 조이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7의 B). [그림 5는 향을 넣고 다니는 연혜로 J는 형식적인 굽으로 향료를 넣는 통의 구실을 하는 것이고 진짜 굽은 [그림 5의 K부분 이었다.

시대별로 보면 宋대의 연혜는 앞코 모양은 고대 신발을 본 딴 위로 향한 上尖이고, 바닥은 편평하고 곧으며, 굽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元대에는 송대의 것보다는 덜 심한 上尖의 연혜와 바닥은 弓形이 아닌 편평한 형태의 굽이 없는 연혜가 대부분이었으며, 明대의 것은 上尖에 높은 굽의 연혜가 있었으며, 淸대에는 높은 굽과 弓形인 바닥이 휘어진 것들이 많았다. 지역적으로 볼 때 북방 대부분 지역의 연혜는 아래로 향한 下屈 모양이었고, 남방지역은 대부분이 위로 올라간 上尖이었다<sup>20)</sup>.

### 3) 蓮鞋의 소재와 색

연혜의 바닥과 고(그림 5의 K)는 주로 나무로 만들었고, 청대에는 천을 여러 겹 다져 나무 바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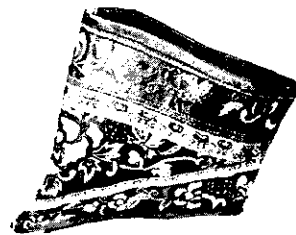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신의 윗 부분(upper)소재는 가죽, 비단, 면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비단을 많이 사용하였고, 주로 자수로 장식을 많이 하였다. 연혜의 안감(Lining)으로는 천이 사용되었다<sup>21)</sup>.

색깔은 빨강, 노랑, 검정, 초록 등이 있었으며, 단색보다는 두 가지색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밖에 연혜에 자수하는 무늬, 신 입구의 모양, 끈 매는 방법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만을 논하였다.

### 4) 蓮鞋의 종류

계절에 따라 봄, 가을에 신는 겹신 외에 겨울에 신는 겹과 안 사이에 솜을 넣는 '면혜(棉鞋)'가 있었으며, 여성이 더러운 거리를 다닐 때 신발을 보호하려고 신던 덧신인 '투혜(套鞋)'가 있었다. 또 잠잘 때 신는 연혜로 신바닥이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고, 신 전체에 수가 놓여있는 진빨강색인 '繡鞋수혜' [그림 6]가 있었으며, 명나라 황궁에 있었다는 신발바닥에 꽃을 조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향설을 넣고 다니며 향설을 뿌렸다는 '香履鞋향설혜'와 바닥에 향료를 담은 서랍을 설치한 '貯香鞋저향혜'가 있었다. 향설혜의 일종으로 신발바닥에 연꽃을 조각한 것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연꽃은 조각하기 어려워 5살의 매화를 조각하여 놓은 '梅花底매화저' [그림 7]가 있었다. 그 외 신 끝에 나비모양을 장식한 '蝴蝶履호접리' [그림 8]와 금방울을 달아 걸을 때 소리를 내게하여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금방울이 울렸다는 '鈴鞋금령혜' 등 다양한 연혜가 있었다<sup>22)</sup>.

또한 청조에는 [그림 9]와 같은 신발의 굽(Heel) 높이가 1-2inch 혹은 4-5inch나 되는 특이한 신발인 화분저(花盆底)가 있었는데 이것은 체형 증대를 위해 신거나 만주족 여인이 자연발인 天足(하늘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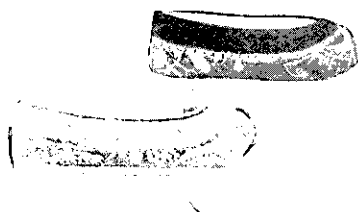
[그림 6] 繡鞋, 「Shoes」, p. 448.



[그림 7] 매회저, 『Shoes』, p. 450.



[그림 8] 호접리, 『Shoes』, p. 446.



[그림 9] 청대의 화분지, 『Shoes』, p. 370.

려주신 자연 그대로의 발)을 가리기 위해 신기도 하였다.<sup>20)</sup>

연혜는 宋대부터 淸대 중기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淸말 민국 초기에는 세치금련식에서 벗어나 굽도 높지 않고, 장식도 적은 실용적이고 기능성이 강조된 형태로 변화되어 전족의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게 된다.

#### IV.纏足의 상징적 의미

##### 1. 宗教적 의미

종교적 의미로서의 전족 풍습은 중국의 봉건 사상인 陰陽家와 儒敎 그리고 佛敎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연주의자라 부를 수 있는 陰陽家는 우주의

어떤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연의 작용을 설명하려는 이론가들로 그들의 핵심적 관념 가운데 하나는 자연에 대한 二元論的 인식이었다. 男性과 밝음, 뜨거움, 積極性 등이 陽이라면 여성과 어두움, 차가움, 消極性 등은 陰이라는 것이다<sup>21)</sup>.

그러므로 정적이고 소극적인 陰에 속하는, 女性을 더욱 陰에 가깝게 해주는 것이 전족이었던 것이다.

또한 公子の 敎說에서부터 시작한 儒敎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宗教로서 공자는 살아가는데 외형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儒敎는 宋대 주희에 의해서 禮를 더욱 중시하는 男女大防의식이 강한 理學, 性理學으로 발전되고, 明, 淸 시대에 그 교설이 만중 사이로 넓게 침투되어 들어간다. 수 백년동안 귀족이나 군인 성직자가 아닌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곳은 세상에서 중국 하나뿐이다<sup>22)</sup>.

이런 儒敎下에서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家門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전족을 하고 연혜를 신었다. 서양 중세의 결혼 의식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딸에 대한 권위의 표시를 결혼 시 딸의 신발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했던 것이다<sup>23)</sup>.

여성에게 속박과 고통의 상징으로서의 전족은 불교와의 만남으로 고귀하고, 진귀함으로 표현된다. 중국인들이 만나게 된 최초의 조직화된 보편적 신앙인 불교는 종교로서의 뿐만 아니라, 고상한 문학, 아름다운 종교예술, 심미적인 만족을 주는 의식들, 혼란한 시대의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수도 생활의 매력, 인도의 형이상학과 초기 과학, 등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sup>24)</sup>.

전족을 金蓮이라 칭함은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므로 불문에서는 이를 청정 고결한 상징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아름다움, 고결, 진귀, 길상 등의 상징으로써 중국 사회 생활에 흡수되어 南朝 이후에 불교 예술의 지표로 많이 응용을 했다<sup>25)</sup>. 연혜의 장식에서 연꽃이미지의 활용도 그것이다. 그래서 연꽃 위에 고귀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맨발로 서 있는 관음보살상 등에서 보여지는 연꽃의 이미지를 여성 전족에 대입시켜 전족을 연꽃처럼 고결하고 진귀함으로 여기게 하여 계속 유지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蓮 앞에 金을 붙여 金蓮이라 칭함은 중국인들이 진귀하고 귀한 것에 “金”자를 붙이는 습관으로 예를 들면, “金句”, “金言” 등이 있다. 纏足시대에 사람들은 작은 발 전족은 귀하게 여기고 큰 발은 천하게 여겼으므로 귀한 발 전족에 금자를 붙여 “金蓮”이라 칭하게 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sup>2)</sup>.

이로서 전족은 여성에게 陰陽家와 儒敎 의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佛敎에 의해 미화되어 발 전 지속되어진다.

## 2. 審美적 의미

宋代 이전에는 전족의 풍습이 없었으나 당시 여자의 발이 작아야 아름답다는 관념은 있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여성의 작은 발에 대한 열정은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신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신발을 신는 연습이 발의 뼈를 휘게 하고, 발을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 1860년대 마취제가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몇몇 여성들은 좁은 신발을 더 잘 견디내기 위해 발가락을 한 두개를 잘라내기까지 하였다<sup>3)</sup>.

중국사회에서의 작은 발에 대한 열망은 전족으로 표출되고, 전족은 단지 작은 발 이외에 탐미적 의미로 瘦(수), 小, 尖(침), 弓, 香, 軟(연), 正의 7가지 표준이 생기게 된다. 瘦, 小, 尖,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작게 하는 것으로 보는 이에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香은 취각을 만족시키는 전족을 말하며, 弓이 가리키는 것은 발에는 折腰와 凹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신발에 곡선의 美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활의 끝과 같은 모양을 요구하고 있다. 軟은 발의 부드러움이 마치 뼈가 없는 듯하고, 솜과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正은 한 쌍의 발이 반드시 균형에 맞아 조화미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청나라 金蓮 愛讀家인 方絢(방슌)의 '향연품조(香蓮品操)'에 의하면 3촌 길이로 발을 작게 한다면 설령 용모가 평범하고 몸매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고, 이에 비해 제아무리 절세의 美人이라 하더라도 치마 속의 발이 크면 쉽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남성들이 여인들에게 준 情表가 전족 장식이었으며, 여인들도 남성을 유혹할 때 전족을 밖으로 꺼내서 그 자태를 뽐냈다<sup>5)</sup>.

전족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不動한 여성, 受動적인 여성으로의 중국의 남성적 담론에 부응하여 인공적 정체성을 만드는 상징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나름대로 미의 기준을 세워 眈美成을 강조해 예로틱하게 발전하게 된다.

## 3. 트로마적 의미

트로마(trauma)는 마음에 크고 깊은 외상을 입은 상태로 전족은 정신분석학적으로 2가지의 트로마로 분석할 수 있다.

### 1) 페티시즘

纏足은 프로이드가 말한 민족심리학적으로 표현된 페티시즘(fetishism)으로 우선 여성의 발을 훼손시켜 놓고, 다음에 훼손된 발을 페티시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티시즘은 성적 일탈 행위로 성 목표 도착과 성 대상 도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전족 페티시즘은 성 목표 도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행위시 성교가 목표가 아닌 성대상의 대체물, 예를 들면, 신체의 일부 머리칼, 발, 소지품(속옷, 구두) 또는 그 상징이 되는 것(포피, 가죽) 등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페티시즘적인 조건으로는 머리칼의 색깔, 의류 때로는 신체의 결합 등도 있다<sup>6)</sup>.

원나라의 작가 도종의는 [철경록]이라는 문집23장에서 “부유하고 방탕한 남자손님들이 고급창기들의 작은 신발로 술을 마시는 金蓮杯(금련배) 향연들을 개최하곤 했다”라고 구두 페티시즘에 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sup>7)</sup>.

발을 페티시로 하는 도착에서는 냄새를 풍기는 발만이 성대상이 되는데, 전족의 발이야말로 그 부패와 썩는 냄새가 코를 찌러 향을 넣고 다니는 蓮鞋가 있을 정도니 말할 필요가 없겠다. 프로이드 외에도 19세c 후반의 유명한 성 병리학자인 독일의 크라

프트 에빙, 블로흐, 프랑스의 샤를 펠과 알프레드 비데는 페티시즘의 대상물 대부분이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sup>33)</sup>.

전족 여성과 가까운 남성들은 성적인 전회를 하면서 그녀들의 발에 키스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을 통째로 입에 넣고 게걸스레 빨아대기도 했다. 그보다 더 가학애적인 성적 일탈로서의 남성들은 성교를 하면서 불구가 된 그들의 발을 비틀어 비명을 지르게 하여 그들의 즐거움을 더 했으며, 나아가서 그녀들의 발을 함께 모아 놓으면 휘어져 합친 모양이 擬似裂口(pseudoorifice)가 되어 상징적인 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sup>34)</sup>.

2)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관한 융의 생각은 1921년 출간된 [무의식의 심리학]에 나오는데, 집단 무의식의 특징은 개인적 무의식과는 달리 유전적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 무의식은 대부분 콤플렉스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집단무의식은 원형이라고 부르는 先在하는 형태, 본능적 행동양식으로 구성된다<sup>35)</sup>. 융은 고대 문화유산을 지닌 종족은 다른 종족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집단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단적 관념이나 형식은 한 개인만이 속성이 아니라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고유한 속성이다. 현재도 지구에 남아있는 미개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체상흔이나 이빨 다듬기, 머리

변형 등은 개인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보편적인 본능의 욕망인 집단 무의적 욕망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 사회의 정신적인 가치가 근대 문명에 맞닥뜨리게 되어 자신들의 생활의 의미가 상실되고, 사회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 무의식적으로 태고적부터 해온 신체상흔, 이빨 다듬기, 머리변형 등으로 그들 사회의 신비성과 마력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sup>36)</sup>. 纏足 또한 중국의 漢族적 집단 무의식에서 표출된 집단적 욕망의 상징물로 중국 남성들의 儒敎적 담론에 입각한 여성에 대한 정체성과 여성을 자신만의 성적 노리개로 만들고자 하는 집단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적 행동체제인 전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현시킨 것이다. 이것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하는 독일인의 집단 무의식적 욕망을 행동이 우선하는 파시즘적 욕망으로 대신 충족시켜준 나찌즘의 예와 유사하다.

전족이 신체가 변형되는 고통을 감수하고 1000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그와 같은 사회의식, 대중의 파시즘적 욕망속에서 인공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그것을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중들의 비합리적 성격 구조인 집단 무의식을 그 민족이 아닌 그 집단 무의식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풀어 줄 때까지 더욱 더 작게하여 '三寸'가 되고, 더욱 더 에로틱한 '金蓮'이 되어 계속 유지 발전하게

<표 1> 전족과 상징적의미

분석관점	상징적의미	纏足の 특징	蓮鞋의 명칭
사회문화적 관점	종교성	· 陰陽家-여성은 陰으로 不動, 受動화 시킴. · 儒敎-여성을 소유의 개념화하고, 男女區別의 척도 · 佛敎-纏足の 애칭인 金蓮의 蓮은 연꽃을 의미	· 繡鞋 · 梅花底
	심미성	· 纏足美의 7가지 표준. · 纏足으로 여인의 美를 구별. · 화려한 장식성(刺繡와 香料등)	· 貯香鞋 · 香屐鞋 · 蝴蝶履
정신분석학적 관점	페티시즘	· 훼손된 발, 냄새나는 발을 승배의 대상으로 삼음. · 질의 대용물로 사용됨. · 金蓮杯의 향연시 술잔으로 사용함.	
	집단무의식	· 1000년이나 上, 中, 下를 가리지 않고 유지. · 元, 淸시대에도 거의 漢族만이 함. · 무의식적 욕망을 대중적 파시즘으로 표현.	



된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여성에게 전족은 더 이상 신체속박이나 고통의 대상이 아닌 고귀하고 아름다운 '美'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표 1>에서 전족과 상징적 의미에 대해 요약 정리해 놓았다.

## V. 결 론

전족은 宋대에 출현하여 明대에는 '三寸'라는 크기의 척도와 다양한 美적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고, 淸대에 와서 '金蓮'이라는 애칭과 함께 최고조를 이루다, 1949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중국여성들의 풍습이었다.

전족신발인 蓮鞋의 명칭은 '弓鞋', '繡鞋'가 있고, 소형적 특징으로는 작고, 뾰족하고, 굽혀지고, 굽이 있는 것으로 주로 소재는 비단이 많이 쓰였으며, 신발의 앞 코 모양과 장식방법, 굽의 높이 등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전족과 전족신발의 史的고찰과 형태학적 고찰을 통하여 전족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宗教的 의미로서 전족은 陰陽家와 儒敎에 의해 숙명적으로 받아 들여져 不動, 受動적 여성과 남성의 소유물로서의 여성을 상징하였고, 佛敎에 의해 연꽃의 이미지로 미화되어 순결한 여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둘째, 전족으로 여인의 美를 구별하였고, 전족의 크기 뿐 만 아니라 旣美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세워 에로틱하게 발전하는 審美적 의미가 고찰되었다.

셋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性的일탈로서의 페티시즘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 중국 남성의 집단적 욕망을 표출한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물이 되어 1000년간 유지되는 전족의 트로마적 의미가 고찰되었다.

결과적으로 纏足은 담론적인 것이 형상적인 것을 지배한 좋은 본보기로 자연상태로의 발을 중국남성들의 담론에 부응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린 남성적 이데올로기의 승리의 表象이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 속에서 蓮鞋 또한 단순한 신발이 아닌 남성들에게는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이마고가 되어, 여성은

도덕적으로는 요조숙녀여야하고 신체적으로는 남성의 마음을 끌어야 한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부여받은 중국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체 장식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연구로 발과 신발의 정체성 확립에 새로운 의미부여의 기회가 되어 신발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Howard S. Levy, *Chinese Footbinding*, SMC Publishing INC, 1966.
- Mary Trasko, *Heavenly soles*, New York: Abbevillpress, 1989.
- Valerie Steele, *Fashion Theory: Dorothy Ko Boudage in time footbinding and fashion theory*, 1997, March.
- Linda O' Keefe, *Shoes*, NewYork: workman Publishing, 1996.
- all about shoes*, Tronot:Bata limited, 1994
- Colin McDowell, *Shoes*, London: Thames and Hudson, 1998.
- 高春明, 『中國裝飾五千年』, 日本:東京書院, 1993.
- 『靴』, 東京: INAX, 1992.
- 高洪興, 『纏足史』,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5.
- 高春明, 肩飛, 『中國歷史服飾』 학림出版社, 1983.
- 華梅, 박성실, 이수웅 역, 『中國服飾史』, 서울: 경춘사, 1992.
- 이정옥외 3명, 『청대 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99.
- 이정옥외 3명, 『중국 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2000.
- 고병익, 『동아시아 문화사논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정정일편저,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4』, 서울: 신서원, 1997.
- 편집부편저, 『동양사의 기초지식』, 서울: 신서원, 1991.
- 존 K. 페어뱅크, 에드윈 O. 라이샤워, 알버트 M. 크레이 그저, 김한규, 전용안, 윤병남역, 『동양문화사 上』, 서울: 을유문화사, 1991.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 동양사학회, 『개관 동양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5.
- 아놀드 J. 토인비, 김기철 역, 『세계사(인류와 어머니 되는 지구)』, 서울: 일녕, 1991.

- 에른도트, N, 고프리치저, 이내금 역, 「고프리치 세계사」, 서울: 자작나무.
- 이상현, 「지성사로 본 세계사」, 서울: 집문당, 1998.
- 데이먼즈 모리스, 이규범역, 「바디워킹」, 서울: 범양사, 1994.
- 민석홍, 「세계문화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3
- 박유명, 「상식밖의 동양사」, 서울: 세길사, 1994.
- 이벤허,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서울: 김영사, 1994.
- 장원철, 「중국 성 풍속사」, 서울: 까치, 1993.
- 이의정 · 양숙희,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1999.
- 에드워드 A 베넷, 김형섭역, 「한 권으로 읽는 용」, 서울: 푸른숲, 1997.
-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성호편역, 「프로이드성애론」, 서울: 문학세계사, 1997.
- C. G. 융, 설영환역, 「C. G. 융 무의식 분석」, 선 염사, 1994.
- 게르하르트 베어, 한미희 역, 「카를 융 생애와 학문」, 서울: 까치, 1997. 사카모토 이메이, 노지연역, 「내 생애 처음 만나는 칼, G, 융」, 서울: 현실과미래, 1999.
- 조선희, 동북아시아 신 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7.
- 신수용, 중국 전족에 관한 사적 고찰, 국민대 석사논문, 1995.
1. 박유명(1994), 상식밖의 동양사, 세길사, 76.
  2. 高春明(1993), 中國裝飾5千年, 日本:東京書院, 286.
  3. 高洪興(1995), 纏足史, 上海:上海文藝出版社, 17.
  4. 조선희(1997), "동북아시아 신 문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40.
  5. 존. K. 페어뱅크, 에드윈 O. 라이샤워, 알버트 M. 크레이그, 김한규, 전용안, 윤병남역(1991), 동양문화사상, 서울: 을유 문화사, 180.
  6. R. H 반홀릭, 장원철역(1993), 중국 성 풍속사, 서울: 까치, 275.
  7. 高洪興(1995), 纏足史,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
  8. 上揭書, 26.
  9. 高洪興(1995), 纏足史,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2.
  10. 고병익(1997), 동아시아 문화사 논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11.
  11. 上揭書, 24.
  12. Howard S. Levy, Chinese Footbinding, SMC Publishing INC, 154.
  13. 高洪興, 纏足史, 26.
  14. Linda O' Keeffe(1996), Shoes, New York:workman Publishing, 407.
  15. Howard S. Levy, Chinese Foot-binding, SMC Publishing INC, 245.
  16. Howard S. Levy(1996), Chinese Foot-binding, SMC Publishing INC, 25-26.
  17. 高洪興(1995), 纏足史, 上海:上海文藝出版社, p. 75
  18. 高洪興, 纏足史, 75-76.
  19. 上揭書, p. 75.
  20. 上揭書, 78-84.
  21. 華梅, 박성실, 이수웅역(1992), 중국복식사, 서울: 경춘사, 235.
  22. 존. k. 페어뱅크, 에드윈 o. 라이샤워, 알버트 M. 그레이그, 김한규, 전용안, 윤병남역(1991), 동양문화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64.
  23. 에른스트. H. 고프리치저, 이내금역(1997), 고프리치 세계사, 서울: 자작나무, 180.
  24. Mary Trasko(1989), Heavenly soles, New York: Abbevillpress, 12.
  25. 고병익(1996),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지성사, p. 115.
  26. 신수용(1995), 중국 전족에 관한 사적 고찰, 국민대 석사논문, 41.
  27. 高洪興, 上揭書, 45.
  28. Mary Trasko, Heavenly Soles, N. Y: Abbeville, 13.
  29. 高洪興, 纏足史, 87.
  30. 高洪興, 纏足史, 116.
  31. 지그문트 프로이드저, 정성호편역(1997), 프로이드 성애론, 서울:문학세계사, 45.
  32. R. H 반홀릭, 장원철역(1993), 중국 성 풍속도, 서울: 까치, 325.
  33. Stephen Kern, 이성동역(1996), 육체의 문화사, 서울:의암, 76.
  34. 데이먼즈 모리스저, 이규범역(1994), 바디워킹, 서울: 범양사, 287.
  35. 에드워드A 베넷, 김형섭역(1997), 한권으로 읽는 용, 서울:푸른숲, 80.
  36. C. G 융저, 설영환역(1994), 무의식 분석, 서울:선영사, 336.